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지진에 의한 방송송출 중단 재난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7일(목) 지진에 의한 방송송출 중단 상황을 가정하여 방송분야 재난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제이티비씨(JTBC) 방송국, 마포소방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였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하여 제이티비씨(JTBC) 방송국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기능 복구와 화재 대피 방법을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방송시설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방송(KBS) 방송사의 발전차를 이용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동 대응 체계도 점검하였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연계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여부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은 “재난의 발생이 복잡화·다양화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엄정환 (02-2110-1360)
	정보보안팀	담당자	주무관	주은선 (02-2110-1314)
	방송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훈식 (02-2110-1442)
	재난방송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병우 (02-2110-1448)